

목포시 청소년 정책 돋보였다



목포시가 올 한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지난 11월에 열린 청소년 화합 한마당 모습.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괄목할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 한 해 서남권 청소년 축제를 비롯한 청소년 화합 한마당,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 사랑나눔 콘서트 등 5개의 문화행사를 개최해, 총 1만3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재능과 끼를 발산하는 장을 마련했다.

또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운영한 결과, 총 9569건에 이르는 상담 실적과 함께 30개교 7089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학교폭력 예방교육·자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인 ‘스마트

을 문화행사 1만3000명 참여
위기·취약계층 1만여건 상담
인터넷 중독·학폭 예방교육 등
청소년 육성 사업 잇단 표창

교실’ 운영을 통해 올해 실시된 검정고시에서 총 48명이 응시해 45명을 합격시키는 쾌거를 달성했다.

최근에는 목포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 문화센터)이 여성가족부와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국 341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청소년 운영 및 관리체계,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시설 및 안전

분야 등 7개 영역에서 고루 호평을 받았다.

현재 목포시청소년 수련원은 초·중·고 학교 수련활동, 자유학기제 진로·직업 교육,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4개소를 운영해 민·관 합동 단속을 매일 실시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전남도지사 표창도 받았다.

김의숙 목포시 여성가족과장은 “종합적인 청소년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긍정적이고 건전한 미래를 창조하는 가치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올 시민 공감 10대 시책 선정 시상

대양산단 기업 유치·해상케이블카 설치 등

목포시가 2016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부서별 주요시책 추진사업 중 시민과 공직자가 공감하는 10대 시책 사업을 선정 시상했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 부서에서 1년 동안 추진했던 시책 중 성취도, 국비 확보(예산절감), 효율성, 대시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우수시책을 선정했으며, 우수 시책에는 대양산단 분양 및 기업유

치와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공동 선정됐다.

목포시는 대양산단 분양 및 기업유치를 위해 전 직원이 적극적인 세일즈행정을 펼친 결과 23개 기업, 27만1.582㎡, 748억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전남도 2016 투자유치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의 핵심 정책으로 지역경

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써 효율적이고 차별없이 추진해 시민과 공직자가 공감하는 시책으로 인정받았다.

장려상으로 선정된 8개 시책사업은 ▲동명동 새마을사업 및 고하도 목화섬 공모사업 ▲청사 에너지절감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 및 3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지자체 청사 에너지절감 시책 ▲7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조선업 근로자 지원 사업 ▲국립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사업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황해 역사관’ 건립 탄력…내년 국비·도비 확보

부지 7000㎡ 2019년 완공

황해교류 역사관(황해 역사관)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 4억원과 도비 4억원 등 8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 일원에 건립될 황해 역사관은 부지 7000㎡에 연면적 3300㎡(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되며 오는 2019년 완공 예정이다.

황해 역사관 1층에는 정음성, 진리, 장보고 등 역사인물 상설 전시관 3개실과 수장고가 설치되고, 2층에는 남종화 등 다양한 시·서·화 등 상설 전시관 3개실과 기획전시실 1개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황해 역사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

은 국비 50억원과 지방비 50억 등 총 100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시비 투입 없이 전액 국·도비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지난 11월말 황해 역사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사)한국 문화공간 건축학회에 의뢰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다.

내년 5월 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규모와 사업비는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전남도는 역사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4차례 개최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중국 영파시 고려사관 답사를 실시했다.

목포시는 전남도에 예정부지로 신설 2곳(옥공에 전수관 옆, 고하도 일원)과 리모델링 4개소 (황운노조 건물, 심상소학

교, 갯바위 상가, 갤러리 웨딩) 등 총 6곳을 대상 사업지로 건의했다.

목포시는 6곳 가운데 용해동 구 전통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예정 부지를 최적의 장소로 꼽고 있다. 공유지로서 건립공사가 용이하고 인근 문화시설 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에 의욕을 보여 온 전남도의 회 강성희 도의원(목포1)은 “사업은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운영은 목포시가 맡는 구조”라면서 “전남도내 산재된 호남과 중국과의 역사교류를 한눈에 조망하는 역사관이 차질 없이 진행돼 중국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 의료관광 시대 열었다

중국인 8명 ‘메디컬 스트리트’ 첫 방문 진료



최근 중국 절강텔레비전과 미용업체 관계자 8명이 목포시내 2개 병원에서 치과진료를 비롯한 혈액검사, 초음파 감상선 등 검사를 받았다.

목포시가 백련로에 조성 중인 ‘메디컬 스트리트’에 이달 들어 중국인 의료관광객 8명이 방문해 목포의료관광 시대의 첫발을 힘차게 내딛었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중국 절강텔레비전과 미용업체 등 관계자들이 목포시내 2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혈액검사, 초음파 감상선 등의 검사와 함께 치과진료도 받았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0월 정주·난주·서안 등에서 의료관광 설명회를 열고 무안전세기과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 협약식을 갖는 등 의료관광 시장 개척 활동을 전개했다. 또 목포시는 지난 9월 목포시 방문단이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의료관광객 유치 및 상호협력 사업 추진 협의를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백련로 메디컬스트리트에는 종합병원 1개소와 병·의원 41개소 등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고 1200여명의 의료인이 종사하고 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목포시 의료관광 협동조합이 창립했으며,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올 6월 제정됐다.

김연다 목포시보건소장은 “앞으로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의료 관광객에 대해 하루에 검사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종합검진서비스, 치과치료, 피부미용 등 특화 의료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목포에 체류하며 치료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 명소 평화광장에 노벨평화상 거리 만들자”

수상자 103명 흉상 설치 제안

목포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춤추는 바다 분수’가 위치한 평화광장에 이름에 걸 맞는 관광 콘텐츠 상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창선<사진> 목포시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시정 질문에서 “목포시민을 비롯한 해마다 관광객 60만 명이 방문하는 평화광장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수상자들의 흉상을 제작해 평화의 거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목포시는 지난 2000년 애초 미관광장이었던 이곳을 목포의 상징으로 만들자는 취지 아래 명칭을 공모한 결과, 김대중 정신을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아 평화광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이름만 평화광장으로 바뀌었을 뿐 애초 취지인 김대중 정신을 16년 동안 담아내지 못해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평화광장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지난 1901년부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103명의 수상자의 미니 흉상을 만들어 전시한다면 가족 단위 관광객이나 목포시민들에게 교육의 효과는 물론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목포시가 평화의 도시라는 이미지 제고와 함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화제의 상가 분양] 적은 투자로 매달 딱박 딱박 월 임대료 받으세요~

광주 투자자들 선호하는 **Homeplus**와 **CGV***1층상가 12월 오픈 예정!

1층 수평형 Mall+56% 테라스 설계/고객순환형 동선설계+일반상가 보다 높은 6m 층고

▶예상 수익률 표

계약면적 21.83 (구)평	계약면적 25.47 (구)평	계약면적 35.64 (구)평
실투자금 207,400,000	실투자금 273,000,000	실투자금 298,800,000
보증금 20,000,000	보증금 30,000,000	보증금 30,000,000
월 임대료 1,800,000	월 임대료 2,400,000	월 임대료 2,600,000
년 임대료 21,600,000	년 임대료 28,800,000	년 임대료 31,200,000
대출시 연수익 16,294,000	대출시 연수익 21,730,000	대출시 연수익 23,528,000
수익률(예상) 7.9%	수익률(예상) 8.0%	수익률(예상) 7.9%

*대출율 40%, 금리 3.5% 기준

분양문의 **062)412-2237**